

목포시, 여름 휴가철 맞아 주요 관광지 안전 점검

대반동·외달도·해상케이블카 등 관광과 직원 3시간씩 순환 배치 수영금지 경고판 등 추가 설치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도시로”

목포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가지 및 관광지 안전과 청결한 환경을 위해 나섰다.

떠오르는 관광명소인 대반동 백사장과 외달도 해수욕장,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서 관리하기 위해서다.

목포시는 ‘대반동지구 연안정비사업’ 이후 모래사장이 갖춰지며 대반동 백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대반동백사장과 외달도에 해수욕장·풀장 개장 하루 전인 지난 5일부터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에도 안전관리 요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말에 관광객이 몰림에 따라 시 관광과 직원들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시

간에 1명씩 순환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또한 대반동 백사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4개소를 올해 3월 재정비했고, 6월에는 수영금지 경고판을 4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이어 7월에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총 22개의 안내판을 운영 중이다.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과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판을 설치했고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출입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

이어 시는 목포해상케이블카와 함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고하도 해상데크에 1818m 구간 사이에 CCTV 24개소를 설치했으며, 인명구조함 4개, 구명튜브 41개를 구비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출입차단 시설을 설치해 안전

한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시는 관광지뿐만 아니라 폭염과 집중호우에도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

현재 연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으로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폭염특보 발표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가 발표된다.

시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해 무더위 쉼터 227개소와 그늘막 114개소를 운영하고, 폭염 특보시 살수차 2대를 활용해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물 뿌리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로 인터넷 및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해 손쉽게 위치를 찾아 이용할 수 있고, 그늘막은 교차로 횡단보도·교통신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시 살수차를 통해 상가 및 구도심과 신도심 일대의 주요 간선도로에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하고 폭염 집중시간(오전 10시~ 오후 5시)에 물 뿌리기도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습한 여름철 모기, 파리 등이 폭증함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간에는 9개반 31여명의 인력이 차량,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연무 및 분무소독을 목포시 전 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취약지(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공원 산책로, 하천 등에는 차량을 이용해 연무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요청 시 해당 지역에 신속하게 방역반을 배치하고 있다.

시는 뜨거운 햇빛만큼이나 집중호우도 잦은 시기이니만큼 시는 시내 우수관로와 도로 빗물받이를 점검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소하천 바닥 준설, 갈대 등 이물질들

제거해 하천 흐름을 개선했다.

특히 해안가 도시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 빗물펌프장 10개소가 적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펌프장 내 각종 시설물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조제, 터널 및 지하차도, 교량, 배수로 등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점검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깨끗한 시가지지를 위해 도로 노상저지물 단속 및 불법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양을산 터널 내부 청소와 주요 간선도로 정비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가 없다. 관광객 및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다시 오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선일물산, 유달동에 조미김 96박스 전달

선일물산(대표 김태한)이 지난 26일 유달동 취약계층을 위해 조미김 96박스를 기탁했다. (사진)

유달동은 후원물품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선일물산은 매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로 유달동에 선정을 실천하고 있다.

김태한 선일물산 대표는 “무더운 날씨에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이민희 유달동장은 “유달동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신 선일물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당1동, 중복맞이 사랑의 복달임 행사

목포시 용당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주)는 중복을 맞아 지난 25일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번 나눔 행사는 용당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동부시장 상인회에서 마음을 모아, 삼계탕 바로요리세트 24상자, 열무김치 12통, 떡 15상자, 수박 12통, 잡곡 1kg 50포대, 찹쌀5kg 12포대를 준비했으며 경로당 12개소에 전달됐다.

용당1동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복달임 행



사와 쌀나눔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함께한 새마을 부녀회는 사랑에 복달임 행사를 위해 오전 8시부터 12개 경로당에 전달할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갔다.

목포=정기찬 기자

공영버스 사업 운수중사 희망자 대상 사업설명회

목포시가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시행을 앞두고 기존 태원·유진 운수업체 종사자와 신규 구직자 등 운수 중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1일부터 8월2일까지 3일간 10시 30분에 목포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영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근로조건 변경, 채

용규모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운수 중사 희망자들의 질의 응답과 의견 청취 시간을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설명회가 기존 운수 중사자들에게는 재채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비 운수 중사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지난 6월부터 24일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목포시 제공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성료

목포시가 지난 6월부터 24일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이해하기,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 익히기,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분과별 활동 실행계획 세우기 등 체험활동 위주의 전문교육(광주 마연컨설팅)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을 마무리하며 시민참여단의 참여 소감 발표 시간을 통해 “모든 일에 여

성친화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소통, 공감의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 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걱정에서 즐거움으로, 어렵다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화되었다”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목포시는 9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 금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

목포시가 공정한 상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전체가 해당된다.

단 △상거래 이외 용도의 저울이나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 △2023년 및 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중인 저울 △가정용·

교육용 저울 등은 제외대상이다.

시는 29일부터 8월16일까지 3주간 사전조사를 통해 재래시장, 정육점, 점포, 슈퍼마켓, 금은방 등을 현장 방문하여 정기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오는 8월19일부터 9월13일까지 4주간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전통시장 주차장 등 13개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고, 저울 소재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사는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 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 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정 검사일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061-270-3359)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